



[해설] 이통3사 주파수 할당 신청서 제출 '5G 주파수' 전쟁 본격화 03



Economy

코스피	2438.96 (0.00)	코스닥	883.22 (0.00)
금리 (국고채 3년)	2.19 (0.00)	환율 (원/달러)	1075.00 (-2.70) (1일)



우리동네 후보자는 누구?

6.1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3일 오후 서울 청계천 모전교~광통교 구간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및 25개 구청장선거 후보자' 100명의 선거 벽보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부실 중소기업 잇단 상폐 증권사 '中 투자주의보'

中CERCG 채무불이행 선언 1600억 규모 국내자금 물려
신평사·주관사 심사 지적
증권사도 리스크 관리 목소리

차이나하오란 900090	코스피	2018.06.01 기준(종가)	상장일	기업규모
773	전일 773	고가 0 (상한가 1,000)	거래량 0	
전일대비 -0.00%	시가 0	저가 0 (하한가 542)	거래대금 0 백만	
선차트	1일	1주일	3개월	1년
	3년	5년	10년	
				분지트
				일봉
				주봉
				월봉
				120
				100
				80
				60
				40

지난 1월 29일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를 위해 차이나하오란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네이버 증권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잇따라 상장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 '중국 투자주의보'가 발동됐다.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 등으로 중국 기업 상장 주관사는 물론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던 증권사가 위험에 노출돼서다.

최근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보증을 자회사 채무의 만기내 원금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동반 채무불이행) 조항에 따라 CERCG가 지급보증한 또 다른 달러화 채권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1600억원 가량의 국내 증권사 자금이 물려있다.

◆A등급 中 회사채, 돌연 '디폴트'
해당 ABCP는 NICE신용평가가 등급을 매겼고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관사로 역할했다. 또 해당 채권을 인수한 증권사는 현대차투자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이다.

3일 NICE신용평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지급보증제공자인 CERCG와의 면담을 통해 풍부한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됐음에도 이번 사태 미상환이 발생한 경우와 향후 CERCG가 지급보증을 제공한 채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업계에서는 우선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감지

하지 못한 신용평가사와 주관사의 잘못을 지적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ERCG를 공기업으로 인식한데다 채권에 A2라는 높은 등급을 매기면서 피해를 더 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관사 역시 자산관리자로서 CERCG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ABCP는 나신평이 평가하고, 주관사가 채권을 발행한 지 3주도 채 되지않아 디폴트 위기에 몰렸다.

아울러 해당 채권을 사들인 증권사들 역시 내부 투자리스크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에도 세일즈가 들어왔지만 내부 리스크관리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기업, '또 상폐?'
최근 국내에 상장한 중국기업의 잇따른 상장폐지 역시 '중국 투자 포비아(공포심)'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23일 완리가 상장폐지된 데 이어 현재 차이나하오란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다. 차이나하오란이 상장폐지되면 국내 증시에서만 벌써 11번째 중국 상장폐지 기업이 된다.

앞서 완리는 2016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지난해

거래가 정지된 후 감사인을 재선임해 가까스로 상장폐지 위기를 넘겼으나 2017년 감사보고서도 '의견거절'을 받아 증시 퇴출이 확정됐다.

차이나하오란은 자회사로부터 지난해 400만 달러 규모의 현금을 배당받아 발행했던 전환사채(CB)를 상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으나 최근 이를 상환했다며 현금 배당 수령 결정을 급작스럽게 철회하면서 벌점이 쌓여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다.

중국기업은 자국 상장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국내 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한국거래소(KRX)가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상장 절차를 간소화한 데다 중국에 비해 선진 증시로 분류되는 한국 증시에 매력を感じ고 있다. 이에 국내 증권사는 중국 기업 상장을 주관해 수수료 등을 챙겼지만 반대로 국내 증시 및 투자자들은 중국기업의 희생양이 됐다.

중국기업 상장을 담당했던 한 IR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가들은 국내 공시 절차나 요건을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국기업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뿐만 아니라 경영환경까지 면밀히 따져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업지 기자 sonumij301@metroseoul.co.kr

북방경협서 활로 찾는 재계

1 롯데, TF구성... 북·중·러 교류 활성화

롯데가 북방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롯데는 그룹 내에 '북방TF'를 구성하고 북한에서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3성까지 아우르는 북방 지역에 대한 연구와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TF장은 오섬업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부사장)이 맡았고, 롯데지주 CSV팀·전략기획팀 임원, 식품·호텔·유통·화학 BU의 임원 및 롯데 미래전략연구소장이 참여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북한에 대한 롯데의 관심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했다. 롯데는 1995년 그룹 내에 북방사업 추진본부를 설립하고, 북한과



롯데지주(주)

의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북한 주민들에게 행복한 맛을 전달할 수 있는 제과 공장 설립이 우선적으로 검토됐다. 1997년에는 북한의 '조선봉화사(민경련 산하 무역회사)'와 함께 초코파이 투자를 추진했다. 롯데는 1998년 정부로부터 '남북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고 평양 인근에 초코파이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당시 정치·경제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결국 해당 사업을 중

단해야 했다. 이후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개성공단에 초코파이, 칠성사이다 등의 제품들을 공급하기도 했다.

롯데는 북한 연구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2015년에는 16개 계열사의 신사업 전문가 약 20명이 모여 6개월간 '북한연구회'를 운영했다. 북한연구회는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현황과 경제 협력 방안을 연구했으며, 단동 지역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연구결과는 자료집으로 정리하여 그룹 내에 공유하였다. 롯데는 올해 6월부터 북한연구회 2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2면에 계속)

/박인용 기자 parku7854@

2 CJ대한통운, 유라시아 물류영토 확장

CJ대한통운이 중국, 러시아 등 북방 물류시장 추가 개척을 통해 글로벌 물류 영토 확장에 나서면서 '2020년 세계 5위 물류기업'에 도전한다.

최근 중국 선양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오픈한 데 이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진출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유라시아 브릿지 서비스(EABS) 출시 등을 본격화하면서다.

CJ대한통운은 중국횡단철도(TCR)와 트럭 운송을 결합해 아시아와 유럽지역을 잇는 복합물류상품인 EABS 사업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EABS는 출발 철도역에서 도착 철도역까지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기존의 철도운송 상품과 달리 트럭과 철도를 연계해 '문앞운송(Door To Door)'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개념의 복합물류다.

특히 중국에서 유럽까지 화물운송시 해운의 경우 통상 35~40일이 걸리지만 EABS를 이용하면 17일 정도로 크게 단축돼 획기적인 물류 서비스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유럽 간 경로에 이어 '한국발 유럽향' 경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연내 한국에서 유럽까지 해운과 철도,

트럭을 연계한 화물운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이 지난달 1일 선보인 EABS 1단계에선 중국 청두역과 폴란드 로즈역, 독일 뉘른베르크역, 네덜란드 틸버그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각 철도역에도 착한 화물은 트럭을 이용해 반경 400km 이내의 물류센터나 생산거점까지 운송된다.

이번엔 1단계에 이어 중국과 유럽의 서비스지역을 대폭 늘렸다. 또 독립국가연합(CIS)까지 포함시켰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3 北 철강수요 28배 ↑... 업계, 훈풍 기대감

(2040년까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 기근'에 시달리는 철강 업계에도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으로 수출길이 좁아졌고, 건설·조선 등 국내 철강 수요산업 부진으로 내수 상황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래의 북한 철강 수요는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고 있다.

현대차투자증권은 최근 투자리포트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돼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철강 수요는 2016년 152만에서 오는 2040년에는 약 28배가량 늘어난 4305만톤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 수교하면서 철강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며 "베트남의 성장률을 적용해 북한 개발이 본격화한다고 가정하면 2040년에는 한국 철강 수요의 72% 수준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KTB투자증권도 최근 투자리포트에서 "베트남과 초기 조건이 유사해 북한 철강산업을 전망할 때 과거 베트남 사례를 보는 게 의미가 있다"며 "한국 철강사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2050년까지 연평균 11.9% 성장하는 철강시장을 얻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나금융투자도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남북 통합철도망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가 약 19조1200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